

### 진도군·K-water, 독거노인 안전망서비스 운영 협약

K-water 진도수도지사는 지난 24일 지사 3층에서 진도군·진도경찰서와 상수도 원격검침을 활용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미영 진도경찰서장, 조재창 K-water 진도수도지사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원격검침을 활용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서비스는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 독거노인 수용가의 일일 물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관계기관(진도군 6개 읍면 및 진도경찰서)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서비스다. 진도수도지사는 독거노인 184개



가구에 대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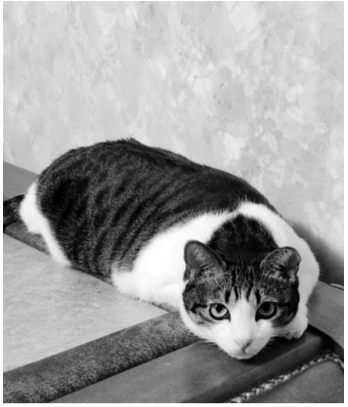
###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정수아씨 '베스트 구연상' 수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임상병리학과 정수아(전공심화과정 4년)씨는 최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베스트 구연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최·전북임상병리사회 주관으로 미국·일본 등 35개국의 임상병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은 김윤식·이선경 교수의 지도로 1·2차 심사 등을 통과한 뒤 행사에서 실력을 뽐냈다. 정 씨는 이번 포럼에서 대학교육의 혁신 실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정화(3년)씨와 남희원(전공심화과정 4



년)씨도 국내학생포럼 포스터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는 오는 11월 10~24일 2024학년도 수시2차 모집을 진행한다. 3년제 과정인 임상병리학과는 2020년부터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고양이·강아지도 기부한다 '전남 착한팻' 2호 반려묘 이쁜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프로그램 '전남 착한 팻' 2호가 화순에서 탄생했다. 25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에 따르면 이번 주인공은 화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신원씨의 반려묘 '이쁜이' <사진>다. 이씨는 지난 2021년 자택 주변에 맴도는 길 고양이 '이쁜이'를 구조해 가족이 됐다. 보호자 이씨는 "이쁜이를 입양한 게 었는데 이제는 기부도 함께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관계로 발전했다"며 "더욱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착한 팻'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 정기기부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에는 진도군에 사는 진돗개 '자연이'가 전남 1호 착한팻으로 가입했다. 햄스터, 도마뱀 등 중에 상관없이 어떤 동물이든 참여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 이상 기부하면 반려동물 명의로 회원증이 발급된다. 성금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대만서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광주시교육청은 25~28일 대만에서 학생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2023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를 실시한다. 일반고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16명은 대만 학생들에게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대만 2·28사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리비아 대수로 신화' 최원석 前동아그룹 회장 별세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성공시키며 동아건설을 국내 최고 건설사로 키워낸 최원석(사진) 전 동아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0세. 동아그룹 최준문 창업주의 아들인 최 전 회장은 1966년 동아콘크리트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룹의 주력 사업인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등을 이끌며 그룹을 재계 10위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굵직한 국내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당대 국내 최고 건설사로 불렸다. 사하라 남부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리비아에 공급하는 이 대형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동아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국내 최고 건설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세계에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와 1997년 IMF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듬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동아그룹은 모체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고인은 이후 학교법인인 공산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고인은 1981년부터 대한체육회 이사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공로로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1988)을 비롯해 요르단왕국 독립훈장,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은 28일 오전 7시다. /연남뉴스

### 차영수 전남도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부회장 선출



차영수(민주·강진·사진)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차 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과제 해결에 앞장서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시도의회 간 공동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실무기구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 맛에 산다(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재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다이노맨2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TV쇼 진품명품(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00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연인 파트2(재)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7인의 탈출(재)
13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우아한 재국 스페셜	55 2시 뉴스 오전	00 뉴스브리핑
14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	
15	00 시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16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슈퍼트론 15 다이노 파워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특집 동서 미래포럼 정책세미나
17	00 6시 내고향	10 2023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4차전 (SSG:NC)	05 분방을 보자	50 생방송 투데이
18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05 생방송 연극복합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19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KBC 8 뉴스
20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국민사형투표
21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흥김동진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2	00 KBS 중계식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재)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50 도시락 스페셜(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레인보우 버블잼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숲이 그린 집
07:30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맛있는 튀르키예3 -노마드의 계절, 안탈리아>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21:30 한국기행 <나의 단짝 4부 막동이 손주들>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55 귀하신 몸(재)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2:45 다큐멘터리K
08:50 레인보우 버블잼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4:00 강신주의 장자 수업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쿠오쿠 내 새끼(재)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애코의 요수리동요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 (음 9월 12일 丁巳)	☎ 010-9790-8237
36년생 파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48년생 평 대신 닭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60년생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볼 필요가 있다. 72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수락해 준다. 84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니 뛰어든다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96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 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31, 55	42년생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합구하고 있어야 한다. 54년생 창의성과 개성의 발현이 절실한 요구된다. 66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었다. 78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90년생 변변찮은 일은 과감하게 차치하는 결단을 요한다. 02년생 글자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7, 57	
37년생 아무것이나 전혀 상관이 없으니 개치지 말라. 49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61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질될 가능성이 높다. 73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85년생 실적이 쌓이고 성과를 드러나게 되는 시기이다. 97년생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6, 94	43년생 마음을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55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67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국을 받게 될 것이니라. 79년생 지금의 마당에서는 참신한 변화의 추구가 활로를 개척하는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91년생 숲은 갈 때 걸려야 하느니라. 03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5, 70	
38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불편하다면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74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86년생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리라. 98년생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80	44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하리라. 56년생 실기된 것을 회색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68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80년생 간접적인 조치는 기급적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92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함이 옳다. 04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2, 66	
39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 51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63년생 본바탕의 한계 때문에 회의를 느낄 수다. 75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도다. 87년생 낯설고 힘들 것이니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느니라. 99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 뒤야 뒤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14, 90	45년생 더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57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69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81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93년생 격삭에 맞아야만 빛도 발하는 법이다. 05년생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56	
40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52년생 속계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 64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76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88년생 먼 곳에서 온 정보가 이익을 부르리라. 00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8, 76	46년생 의무를 다해야 할 처지로서 힘들겠다. 46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국면이다. 58년생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70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82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 94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행운의 숫자 : 09, 85	
41년생 알뜰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비밀리에 조용히 실행해야만 할 일이 있다. 65년생 끝이 싱거울 수도 있음을 알자. 77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니라. 89년생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01년생 융통성만 있다면 가뭄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18, 58	47년생 더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57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69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81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93년생 격삭에 맞아야만 빛도 발하는 법이다. 05년생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56	
	48년생 의무를 다해야 할 처지로서 힘들겠다. 46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국면이다. 58년생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70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82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 94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행운의 숫자 : 09, 85	
	49년생 현상 유지나 정세는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47년생 종기는 끝났을 때 짜야 하고 숲은 갈 때 걸려야 하느니라. 59년생 감미로운 기쁨이 있었다. 71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83년생 만남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많았다. 95년생 냉정하게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17, 72	